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기획특별전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Special Exhibition

만지며 읽는 쉬운 해설

올랭피아 오디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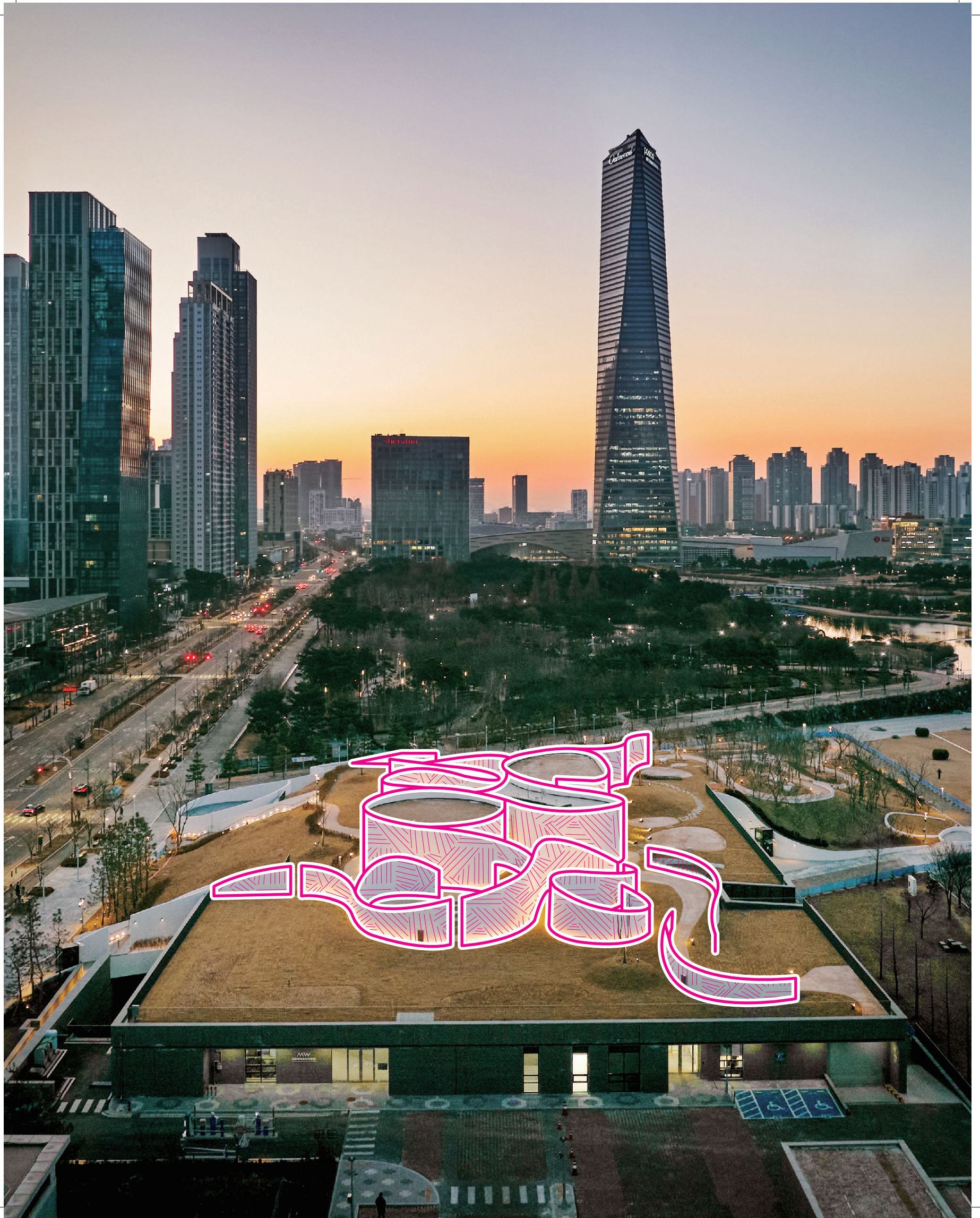
문자와 여성,
총체적 예술의 거리에 서다

mon amour ma douce ma chérie ma mignonne ma putain ma loute ma poule ma pépée
ma louloute mon trésor ma dulcinée ma bien-aimée ma promise ma fiancée ma floume
ma meuf ma pouf ma cocotte ma demoiselle ma salope ma princesse ma grenouille
mon boudin ma biche ma femelle ma douceur ma nana ma pute ma trainée ma
promise mon avenir ma république mon abricot ma fleur ma moule ma figue mon bour
de chou ma bobonne ma chienne ma belle ma reine ma déesse ma danseuse mon
Amérique mon chaton ma lady ma destinée ma régulière ma concubine mon égérie
ma lionne ma moitié mon chou ma frangine ma gonzesse ma légitime ma courtisane
mon cageot ma gourgandine ma guimbarde ma crevette ma poupée ma souris ma
sirene ma muse mon brancard ma bringue ma came mon cageot ma catin ma
comtesse ma greluche ma grognasse ma pétasse ma poufiasse ma fendue ma
fouine ma laitue ma luronne ma mie ma chatte mon cœur mon allumeuse ma rombière
ma bergere ma compagne ma baronne ma roulure ma gonzesse ma jument mon jupon
ma dondon ma faunesse ma tricoteuse mon échassière ma bécasse ma langouste
ma puce ma pitchounette ma panthère ma blonde ma brune ma brunette ma
colombine ma jouvencelle ma rouquine ma miss mon hirondelle mon odalisque ma
bien-aimée ma grande ma pitchoune mon adorée mon hyménée ma favorite ma
pouliche ma poulette ma nymphette mon flirt mon idylle ma mignonne ma fleur mon
cœur mon île mon bonheur ma passion ma mie ma vie mon océan ma jonque mon
horizon mon âme-sœur ma maîtresse mon amante mon épouse ma femme mon amour

L'Olympia Odyssey

Language And Feminism,
Expressions in Total Artworks







전시 소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2024 기획특별전

<올랭피아 오디세이 — 문자와 여성, 총체적 예술의 거리에 서다>는

프랑스 상폴리옹 세계문자박물관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프랑스,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문을 연 문자 전문 박물관입니다.

문자는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이들이나,

자유를 억압 당한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표현 수단이었습니다.

전시에서 볼 수 있는 글과 예술 작품 속에 남겨진

그들의 메시지를 통해, 이 시대의 타자*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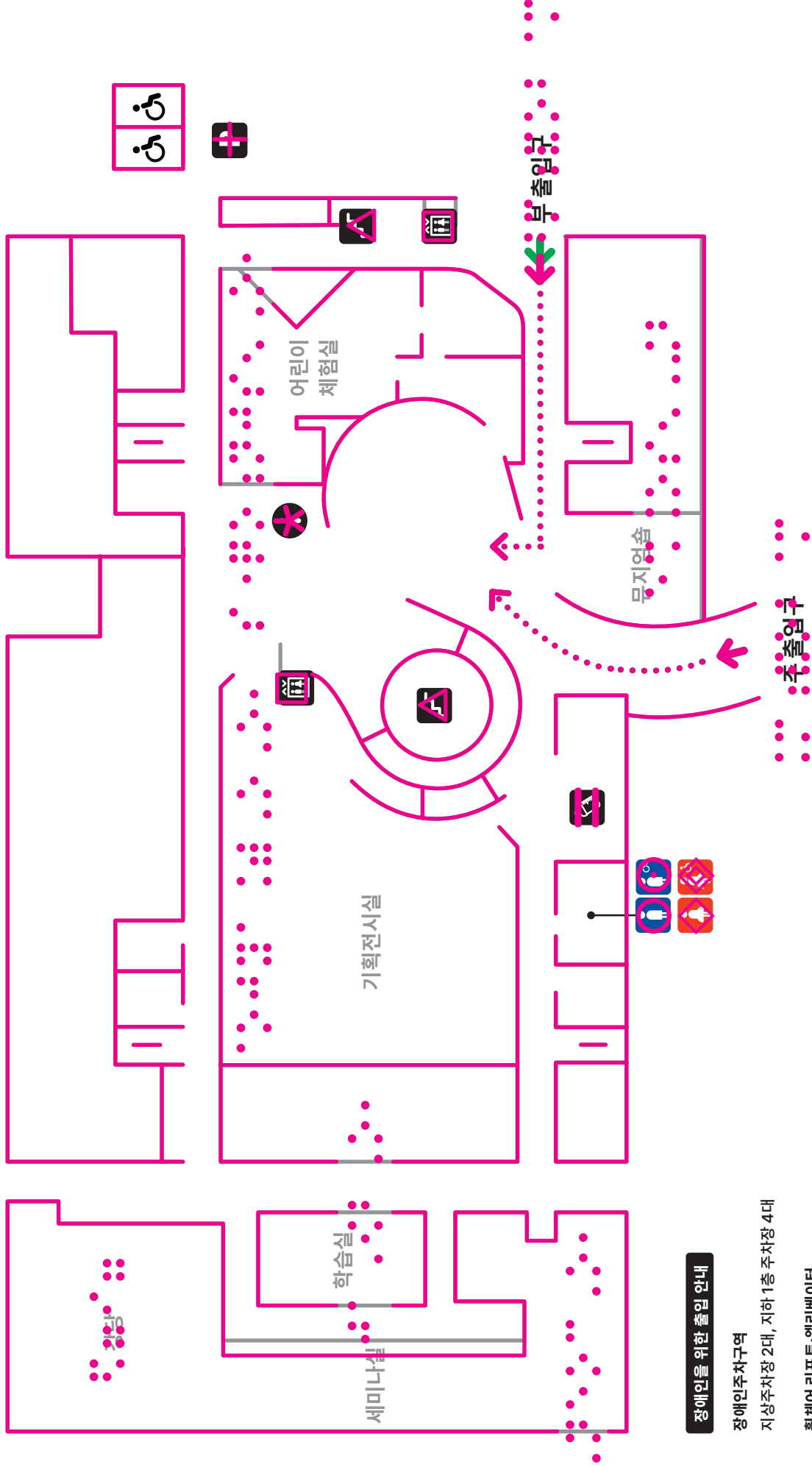
이 책을 통해 <올랭피아 오디세이> 전시의 대표 전시품을

손끝으로 감상해보세요.

* 타자: 중심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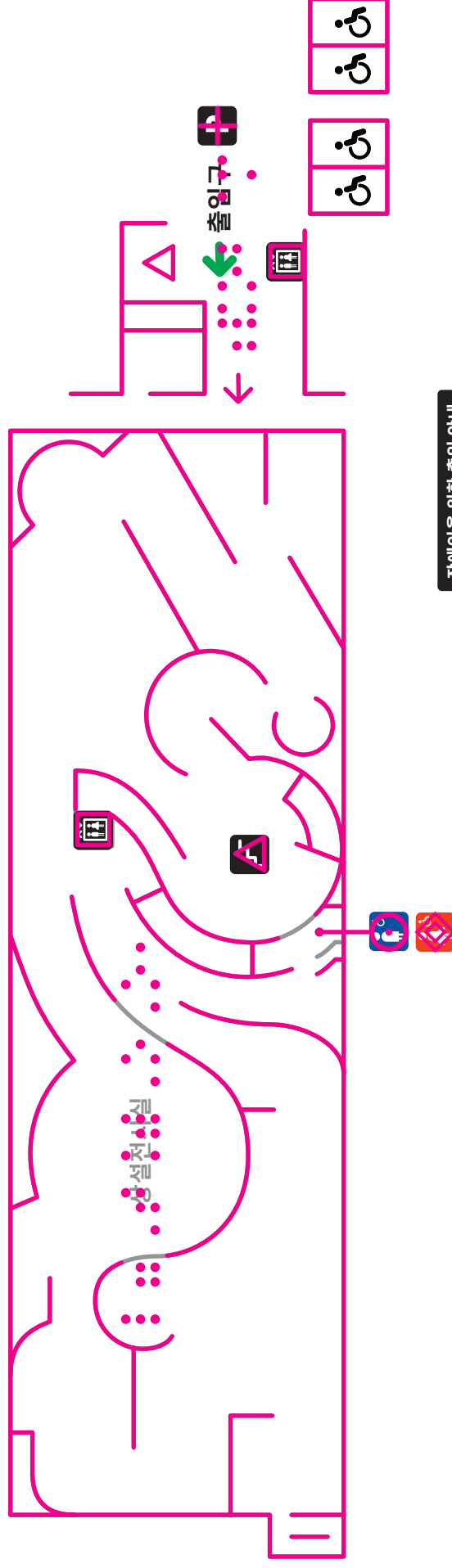
박물관 공간 안내

1층



휠체어 리프트·엘리베이터
 지상 : 박물관 1층 (주 출입구, 센트럴파크 내)에 각각 휠체어 리프트가 있습니다.
 지하 : 박물관 지하 1층 (주차장, 상설전시실)에 각각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지하 1층



장애훈련을 위한 아동 발달 프로그램

장애훈련차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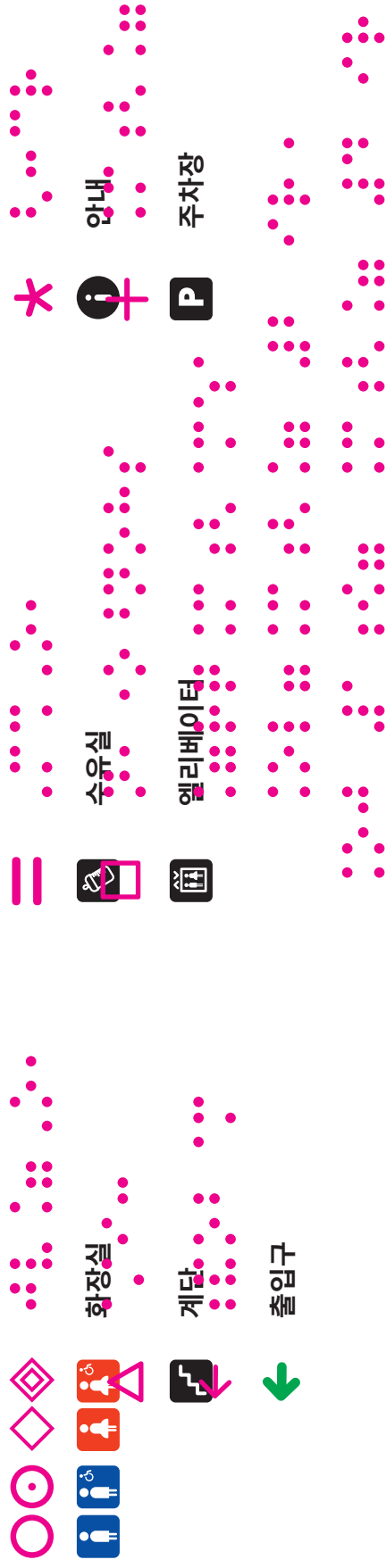
지상주차장 2대, 지하 1층 주차장 4대

홀체어 리포트.엘리베이터

지상: 박물관 1층(주출입구, 센트럴파크내)에 각각 휠체어 리프트가 있습니다.

지하: 박물관 지하 1층(주차장, 상설전시실)에 각각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보정성그점.설의이퍼



화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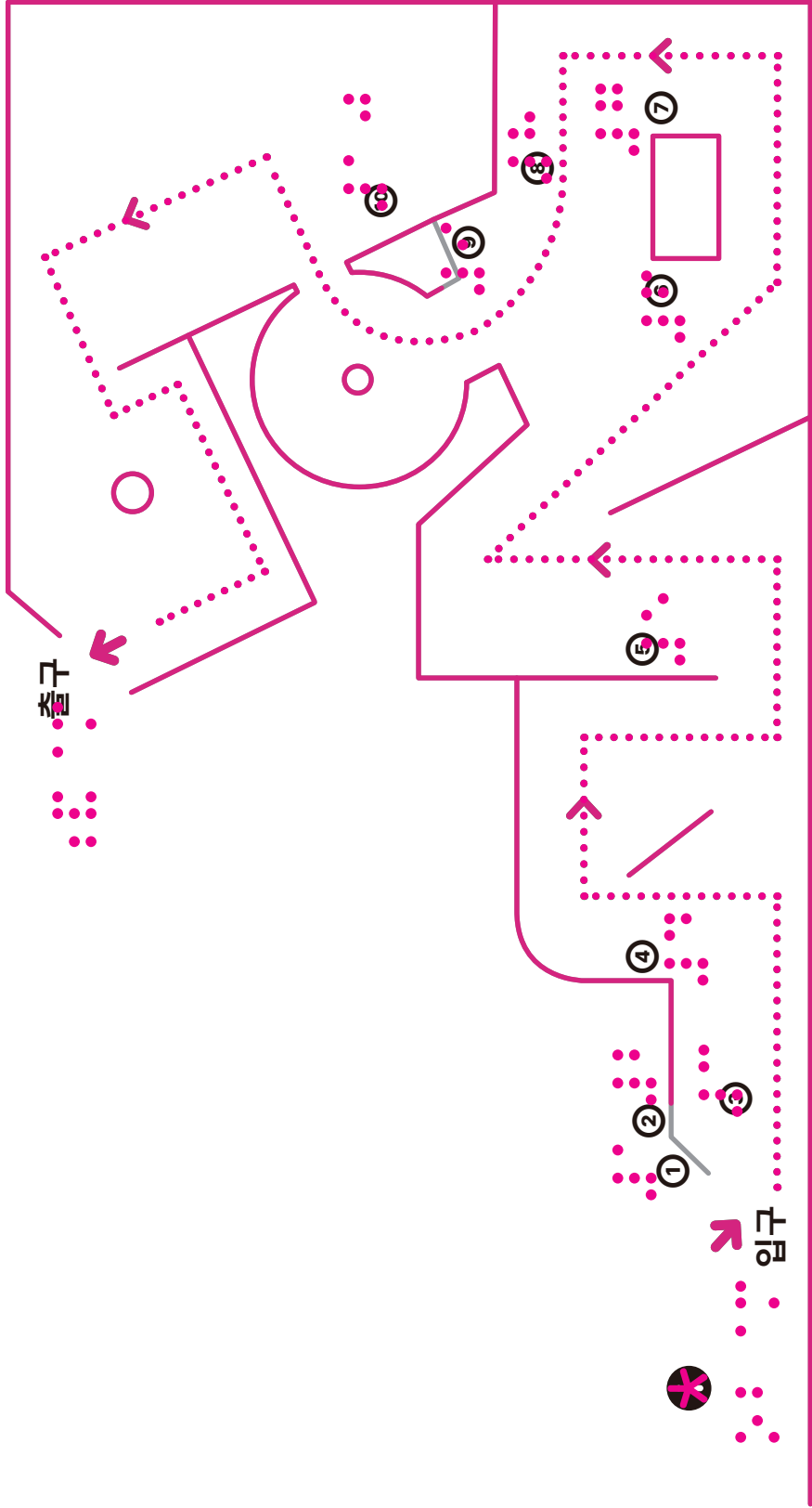
계단

가
이
차별

안녕

주차장

모두를 위한 전시 동선



- | | | |
|--------------------------|---------------------------|----------|
| ① 기획전시실 축지도(촉각으로 느끼는 지도) | ⑥ 인류 최초의 작가, 엔헤두안나의 시 점토판 | 전시 관람 방향 |
| ② 점자책(만지며 읽는 쉬운 해설) | ⑦ 여서 자수 손수건 | |
| ③ 전시 소개 | ⑧ 실물 크기의 초상화 | |
| ④ 1부 안내 | ⑨ 3부 안내 | |
| ⑤ 2부 안내 | ⑩ CODA 안내 | |

만질 수 있는 전시품 위치 안내

 촉지도 · 점자책

- ① 기획·전시실 촉지도(촉각으로 느끼는 지도)
- ② 점자책(만지며 읽는 쉬운 해설)

 전시품

- ⑥ 인류 최초의 작가, 에헤두안나의 시 점토판
- ⑦ 여서 자수 손수건
- ⑧ 실물 크기의 초상화

 전시 안내문(점자번역)

- ③ 전시 소개
- ④ 1부 안내
- ⑤ 2부 안내
- ⑨ 3부 안내
- ⑩ CODA 안내



올랭피아#2

📅 만들어진 때 2012년

📏 크기(가로×세로) 250×160cm

📍 실제 보관된 곳 개인 소장

👤 작가 이름 아네스 튀르노에

이 작품은 마네의 <올랭피아>를 다시 그린 것이다.

그림 속 여성은 옷을 벗은 채, 긴 의자에 누워서 관람객을
도전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림 전체에는 12세기부터 지금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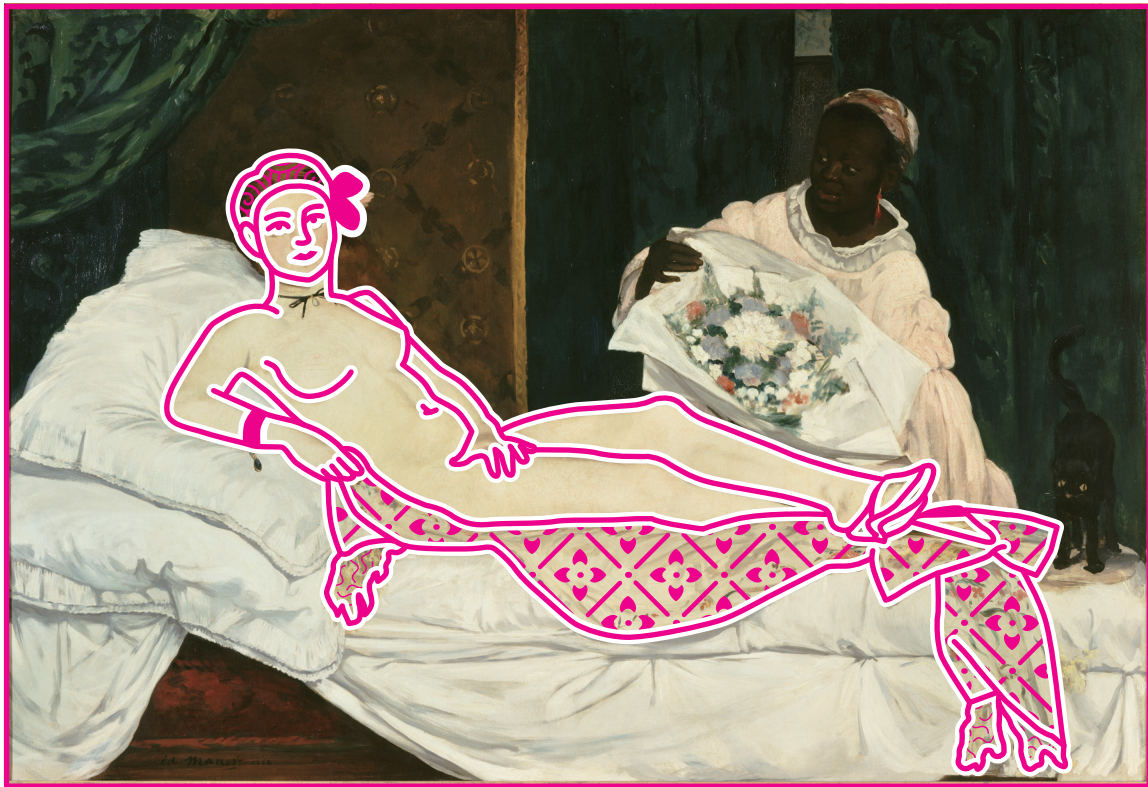
‘ma lionne(암사자)’ ‘mon coeur(내 사랑)’ 등
여성을 표현하는 프랑스 단어들이 적혀 있다.

단어가 다른 사람이 바라본 여성을 나타내고 있다면,
그림 속 인물은 도전적인 시선을 통해 주체적인
여성을 표현하고 있다.



.. · ▲ : 올랭피아 #2 : .. ·

- 📅 만들어진 때 1863년
- 📏 크기(가로×세로) 191 × 130.5cm
- 📍 실제 보관된 곳 오르세 미술관
- 👤 작가 이름 에두아르 마네



.. · : (원작) 올랭피아 : .. ·



여성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들어가려면 옷을 벗어야 하는가?

🖼️ 만들어진 때 1989년

📏 크기(가로×세로) 71.12 × 27.94cm

👤 작가 이름 게릴라 걸스

이 포스터는 앙그르의 <그랜드 오달리스크>를 활용하여 만들었다.

그림 속 여성은 고릴라 가면을 쓰고 있다.

‘여성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들어가려면 옷을 벗어야 하는가?’

라는 영어 문장이 노란색 배경 위에 검은색 글자로
포스터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현대 미술 부문에 전시된 작가 중 여성은 5%도 안 되지만,

누도화의 85%는 여자를 그린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게릴라 걸스는 재미있는 표현과 정확한 통계를 이용해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한다.

고릴라 가면은 게릴라 걸스를 상징한다.



우리는 흰 빵을 팝니다

📅 만들어진 때 1987년

📏 크기(가로×세로) 55.88×33.02cm

👤 작가 이름 게릴라 걸스

이 포스터는 백인의 남성 예술가를 흰 빵으로 비유하여 만들었다.

왼쪽에는 흰색 식빵 위에 <우리는 흰 빵을 팝니다>라는

영어 문구가 적힌 이미지가 있다.

오른쪽에는 ‘성분: 백인 남성, 인공 향료, 방부제.

백인 여성과 유색인종의 최소 일일 권장량도 포함되지 않음.’

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백인 남성을 중심으로,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는

미술계를 비판하고 있다.



우리는 흰 빵을 팝니다



실물 크기의 초상화

📅 만들어진 때 2007~2020년

📏 크기(가로×세로×두께) 120×120×15cm

📍 실제 보관된 곳 미셸 랭 갤러리

📄 작가 이름 아네스 튀르노예

이 작품은 동그랗고 거대한 배지와 닮았다.

표면은 매끄럽고 광택이 나며, 거울처럼 관람객이 비친다.

초록색 바탕에 까만색 글씨로 ‘Annie Warhol(애니 워홀)’

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다.

‘Andy Warhol(앤디 워홀)’이라는 유명한

남성 미술 작가의 이름을, 여성 이름으로 바꾼 것이다.

미술의 역사에서 여성 작가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던

이유를 생각하게 한다.

Annie Varhol

실물 크기의 초상화



인류 최초의 작가, 엔헤두안나의 시 점토판

🏺 만들어진 때 메소포타미아, 기원전 1894~1595년경

📏 크기(가로×세로×두께) 5.8×10.6×3.1cm

📍 실제 보관된 곳 루브르 박물관

신을 찬양하는 시의 일부가 기록된 점토판이다.

인간이 처음으로 사용한 쐐기 문자로 적혀 있다.

수메르*의 중심 도시 우르에서 신을 기리는

사람이었던 엔헤두안나가 지었다.

시에서 '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자신의 이름을 남긴 점이 특별하다.

엔헤두안나는 문자의 역사에서 최초의 기록을 남긴

작가이자, 여성이었다.

* 수메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 발생한 지역. 오늘날의 이라크 지방.



▲ 인류 최초의 작가, 엔헤두안나의 시 점토판



원이 엄마의 편지

📅 만들어진 때 1586년

📏 크기(가로×세로) 편지 58.5 × 34cm

마투리 길이 23cm 너비 9cm(한쪽)

📍 실제 보관된 곳 국립안동대학교 박물관

이 한글 편지는 임신한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을 그리워하며 쓴 글이다.

무덤 속에서 미투리와 함께 발견되었다.

한글은 한자가 공식 문자였던 시대에

여성을 중심으로 사용한 문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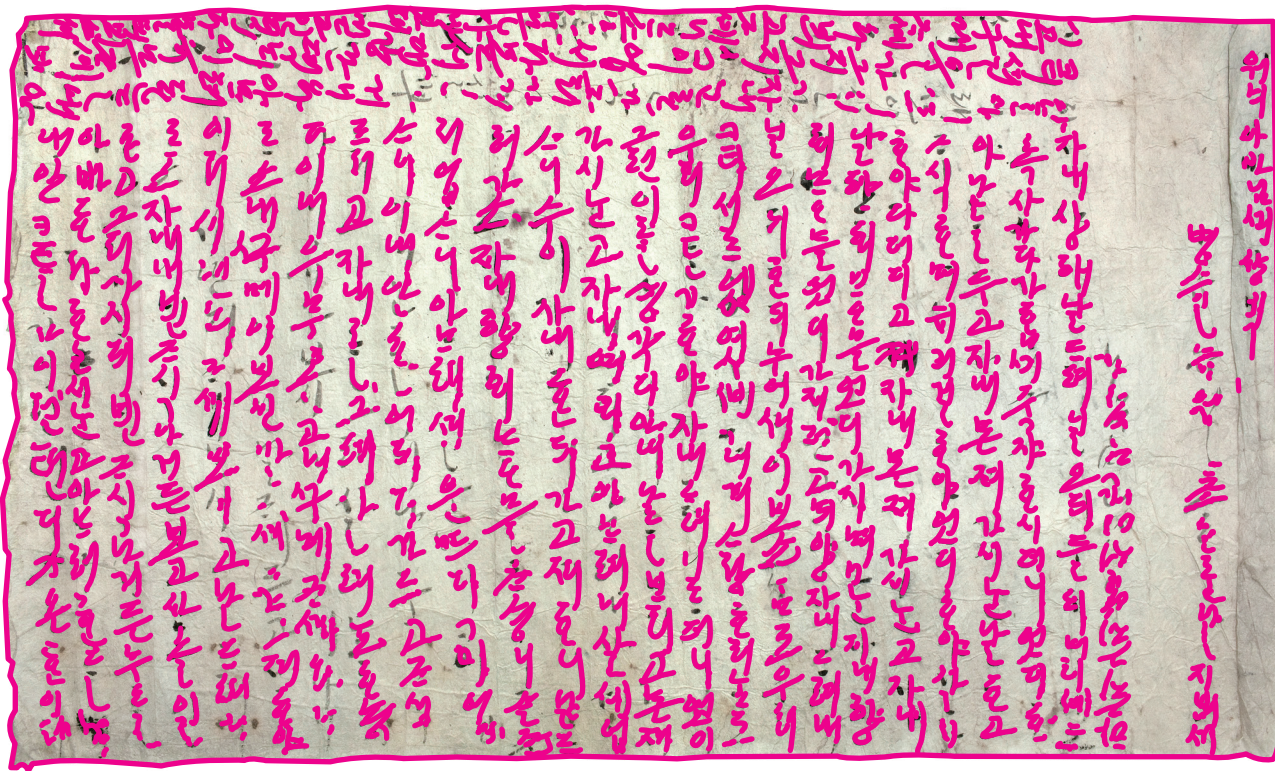
<편지내용 중>

「원이 아버지 보세요.

당신은 항상 나에게 말씀하셨지요.

“우리 둘이 머리가 하얗게 되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라고요.

그러더니 어째서 나를 두고 당신이 먼저 가십니까?」



원어 엄마의 편지와 머투리



겐지 이야기

📅 만들어진 때 일본 에도시대, 17세기 초

📏 크기(가로×세로) 16.5×23.4cm

📍 실제 보관된 곳 국립세계문자박물관

👤 작가 이름 무라사키 시키부

이 책은 17세기 초 여성 작가인 무라사키 시키부가 쓴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장편 문학 작품을 후대에 다시 쓴 것이다.

이 소설은 헤이안(현재 교토)의 황실을 배경으로

겐지 왕자의 삶과 사랑을 이야기한다.

당대 귀족 층이 좋아했던 이 작품은

수 세기 동안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책을 쓸 때 사용된 문자는 히라가나이며,

히라가나는 과거 여성용 문자로 인식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쓰인다.

うへへ所々もあつた所へ更なるもの
うへへ所々もあつた所へ更なるもの
うへへ所々もあつた所へ更なるもの
うへへ所々もあつた所へ更なるもの
うへへ所々もあつた所へ更なるもの
うへへ所々もあつた所へ更なるもの
うへへ所々もあつた所へ更なるもの
うへへ所々もあつた所へ更なるもの
うへへ所々もあつた所へ更なるもの
うへへ所々もあつた所へ更なるもの



여서 자수 손수건

📅 만들어진 때 21세기

📏 크기(가로×세로) 26.5×26.5cm

📍 실제 보관된 곳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여서가 기록된 빨간색의 비단 손수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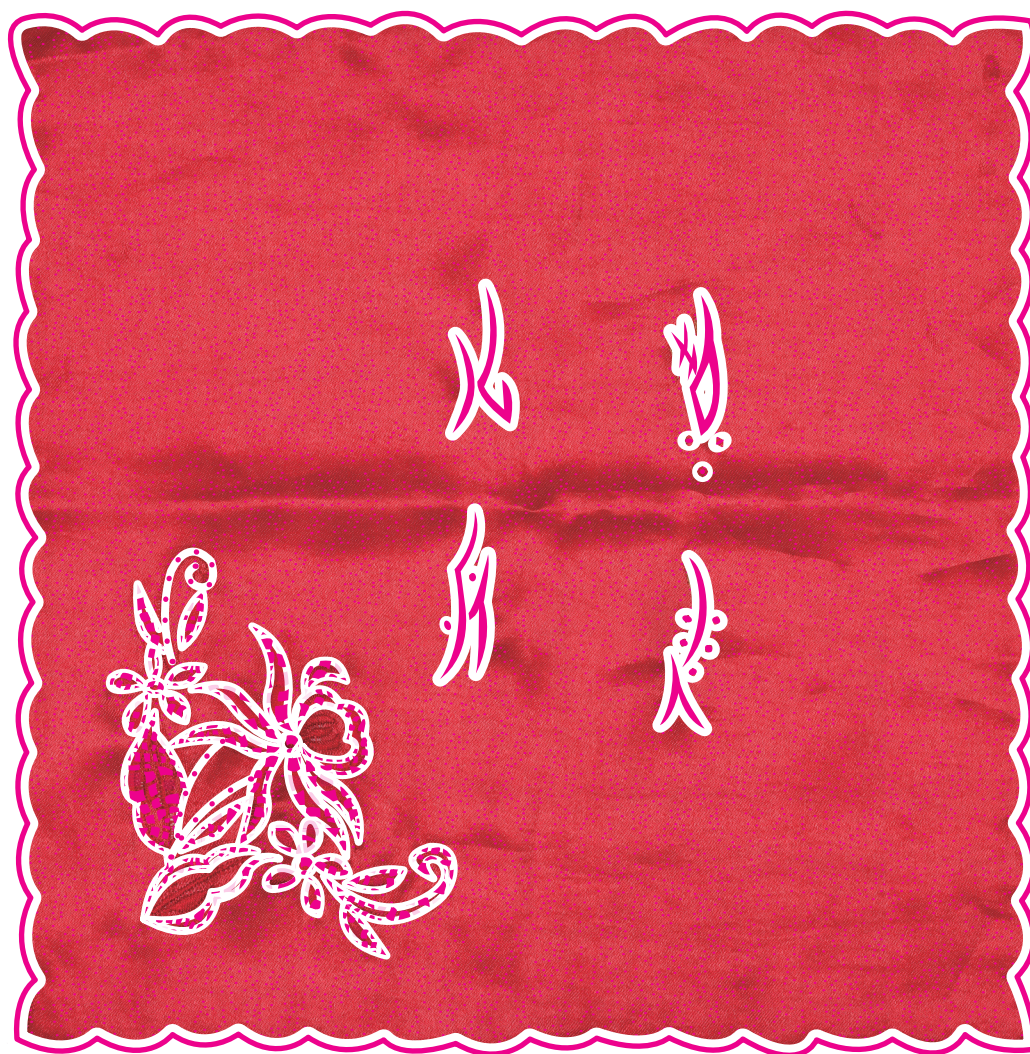
여서는 중국 소수민족 여성들이 사용했던 세계 유일의 여성 전용 문자이다.

손수건 가운데에는 문자가, 왼쪽 아랫부분에는 꽃이 자수로 들어가 있고, 가장자리는 물결 모양이다.

주로 자수를 놓는 일을 하는 중국 후난성 지역의 여성들 사이에서 전해진다.

문자의 모양도 자수를 두기 쉽게 구성되었다.

이 손수건에는 ‘행운을 빌게요’라는 문장이 여서로 적혀 있다.



여서 자수 손수건



제2의 성

📅 만들어진 때 1950년

📏 크기(가로×세로×두께) 13.7×19.7×2.8cm

📍 실제 보관된 곳 개인 소장

📖 작가 이름 시몬 드 보부아르

이 책은 프랑스의 여성 철학자이자 작가인
시몬 드 보부아르를 대표하는 책이다.

보부아르는 남녀 차별이 심했던 1949년 당시의
프랑스 사회를 여러 방면에서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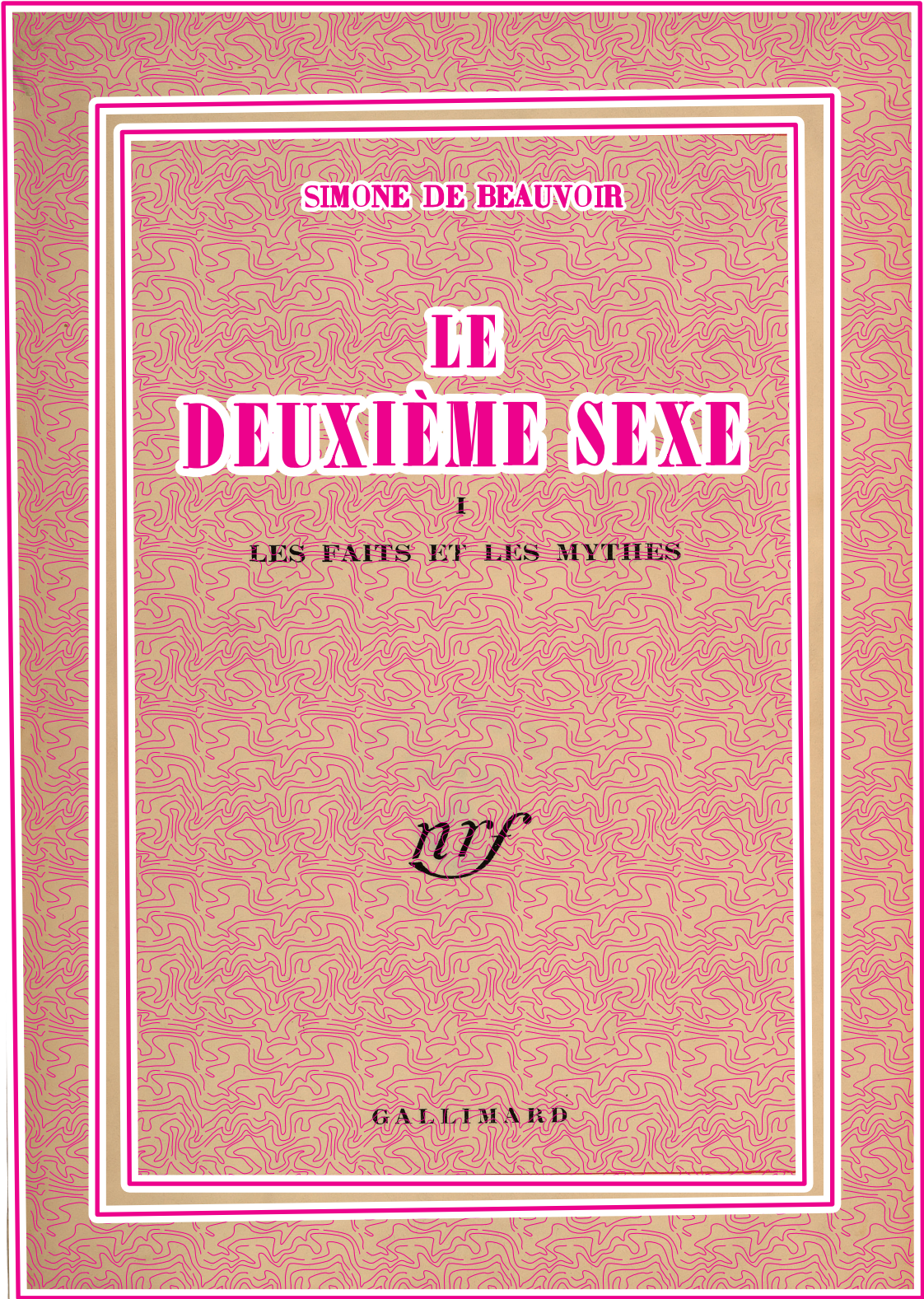
이 책은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문장을 남겼다.

『제2의 성』은 지금까지도 여성 해방과 페미니즘 이론에서

기본이 되는 도서이자,

이번 전시의 주제인 타자라는 개념을 잘 담고 있다.



제2의 성



바다를 보다

📅 만들어진 때 2011년

📍 실제 보관된 곳 작가 소장

👤 작가 이름 소피 칼

프랑스의 예술가, 소피 칼이 만든 14개의 영상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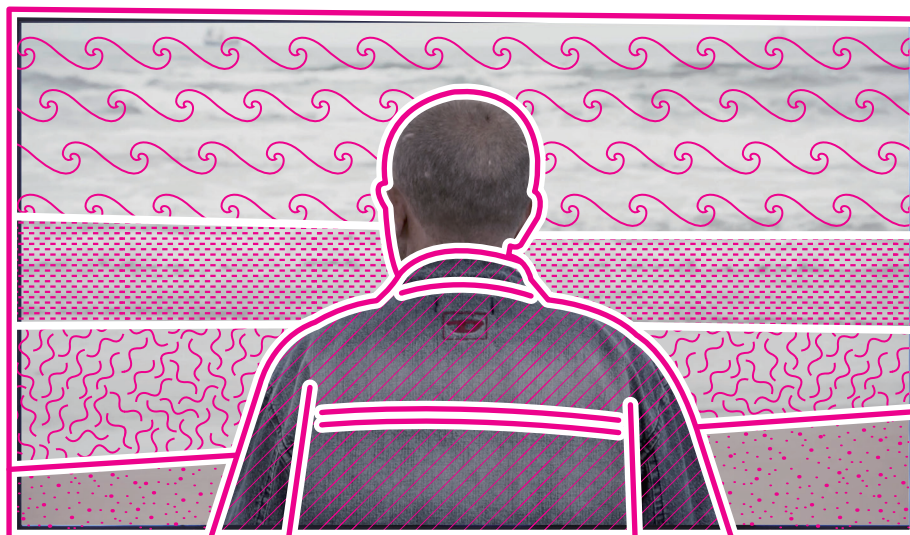
영상은 바다를 처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뒷모습과
보고난 후 그들의 감정이 담긴 눈을 담았다.

이 사람들은 바다 가까이에 살면서도, 각기 다른 이유로
자신의 삶에서 바다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누구에게든 당연한 삶이 누구에게든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이해해 볼 수 있다.

소피 칼은 이번 작품에서 어떤 말이나 문자로 된 설명 없이,
사람들의 눈으로만 메시지를 전달한다.

당신이 떠올리는 바다는 어떤 모습인가요?



바다를 보다



상폴리옹 세계문자박물관 소개

상폴리옹 세계문자박물관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문자 전문 박물관입니다.

이집트 상형문자를 해독한 상폴리옹이라는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졌으며,

세계 문자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박물관은 프랑스 남부 도시 피자크에 있는 상폴리옹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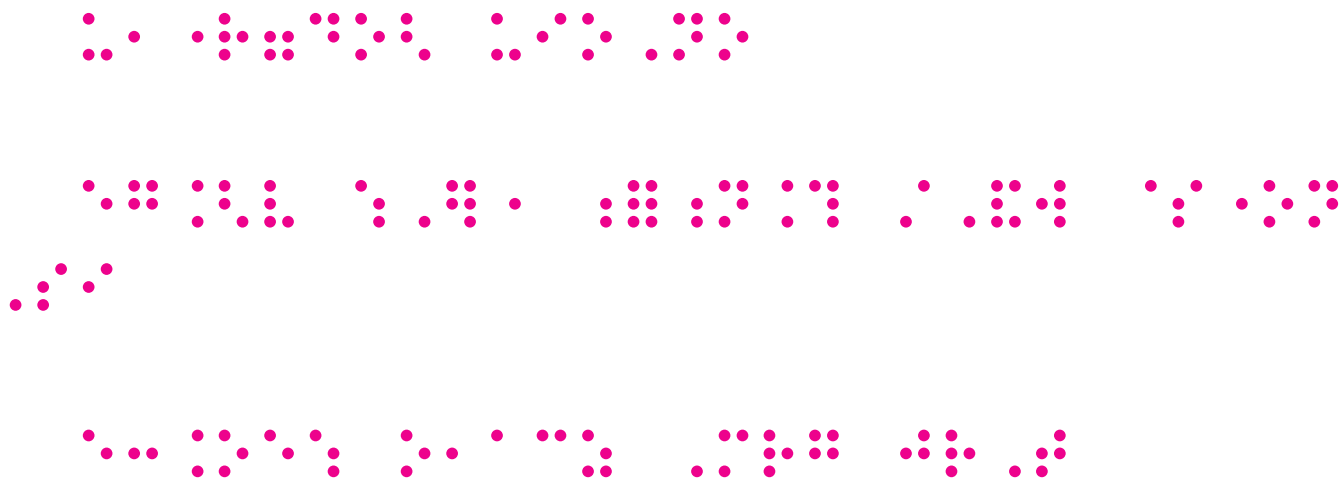
살았던 집에 세워졌습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앞으로도 상폴리옹 세계문자박물관과

함께 활발한 교류를 이어 나가려고 합니다.



Musée Champollion – Les Écritures du Monde, La façade aux mille lettres, P. di Sciullo, 2007, photo
©Luc Boegly-Agence Moatti et Rivière



올랭피아 오디세이
문자와 여성, 총체적 예술의 거리에 서다.
만지며 읽는 쉬운 해설

펴낸 날 2024년 10월
펴낸 곳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총괄 김성현 관장, 엄성근 사무총장, 박준호 부장
기획 양지원, 정세희, 오동숙
제작 도서출판 점자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17
전화 032-290-2000
홈페이지 www.mow.or.kr



쉬운정보



촉각정보

이 자료는 정보약자를 위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를 제공합니다.
모든 관람객이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전시를 쉽게 즐기고 보다 가까이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